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세대별 특성 분석

김혜자*, 백승주**, 김혜진***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2차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년세대의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7개의 범주를 가지며, 각 선택범주 간 순서의 의미가 없고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는 개인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 다항 로짓 모형을 적용했다. 분석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및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의 이유로 비임금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처럼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주관적 의지나 경제적 성과 등에 초점을 둘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안적 선택에 따른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해당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기존 세대와 다른 학습경험을 가진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 불안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세대의 일자리 선택에서 본인의 필요 및 욕구가 우선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용어 : 비임금근로, 청년층, 생활만족도

1. 들어가기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청년층이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 생활만족도, 행복감,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주관적 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일자리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로 부모의 교육수준, 가계 소득 및 자산, 본인의 교육수준 등을 보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삶의 질, 웰빙, 행복 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책적으로 행복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 등이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다. 대학입시 및 취업경쟁은 예전과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세대와 다른 학습경험 즉 행복이나 인권, 인성 등 직·간접적 경험의 차이가 있는 청년층의 주관적 특성은 기존 세대와 구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에 있어 청년층의 차별적 특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매우 유의미한 정책적 성과이자 사회적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통계청이 매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를 통해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교육정도별, 직업별 특성을 파악하여 본 연구의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의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전년 동월 24.9%에서 24.5%로 약 0.4%p 하락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조사자는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지난 2000-2019년 기간 임금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감소추세임이 확인된다. 2000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36.9%였는데, 매년 완만한 감소를 유지하면서 2019년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24.6% 수준으로 낮아졌다. 2000년 대비 2019년 약 12.3%p 낮아진 결과다. 2007-2019 지난 10년간 연령별 비임금근로자 연령별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5-39세는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15.6%를 차지한다. 2007년에는 22.4%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약 1/5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점차 40세 미만 연령대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추세임이 확인된다. 반면 50-59세의 경우 2007년 24.4%에서 2019년 29.7%로 증가했고, 60세이상의 경우에도 2007년 22.0%에서 2019년 32.3%로 증가했다. 이처럼 지난 20년 전후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분포가 50세를 전후로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어업을 제외할 때 연령별 비임금근로자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15-39세 19.0%, 40-49세 25.2%, 50-59세 30.8%, 60세이상 25.0%로 구성된다. 농림어업을 포함한 경우와 비교할 때, 60세 이상 비중이 약 9.2%p 차이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표 1> 연령대별 비임금근로자(2007-2019)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2019
15-39세	22.4	20.9	19.5	19.4	17.7	17.6	17.2	16.3	15.5	15.3	15.6
40-49세	31.3	31.2	30.4	29.1	28.2	27.5	25.8	26.1	25.3	24.2	22.4
50-59세	24.4	25.5	27.2	28.3	29.8	29.8	31.0	30.8	30.6	30.2	29.7
60세이상	22.0	22.5	23.0	23.3	24.3	25.0	25.9	26.7	28.6	30.3	32.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각연도 8월).

<표 2> 연령별 비임금근로자(2009-2019, 농림어업 제외)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2019
15-39세	23.8	23.4	21.3	21.0	20.5	19.1	17.9	17.9	18.5
40-49세	35.6	34.2	33.1	32.4	31.0	30.3	29.4	28.5	26.3
50-59세	28.1	29.6	31.5	31.5	33.0	32.9	32.6	32.8	32.0
60세이상	12.6	12.8	14.1	15.0	15.5	17.6	20.0	20.8	2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각연도 8월).

비임금근로자의 교육정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2019년 비임금근로자의 66.3%가 고졸이하에 해당하고, 대졸이상 비임금근로자는 33.8%로 나타났다. 고졸이상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7년 77.6%에서 2019년 66.3%로 약 11.3%p 증가한 것이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2019년 고졸이하 60.3%, 대졸이상 39.4%로 나타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졸이하 47.3%, 대졸이상 52.7%인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고졸이하 69.4%, 대졸이상 30.6%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대졸이상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임이 확인되는데, 2007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8.8%였으나, 2019년 30.6%로 약 11.8%p 차이난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가 80.3%로 자영업자의 교육정도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2007-2019 기간 동안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62.0%에 이르고,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근로자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전체 비임금근로자 10명 중 약 6명이 고졸이하임을 알 수 있다.

<표 3> 교육정도별 비임금근로자(2007-2019)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2019
비임금 근로자	고졸이하	77.6	76.6	75.8	75.3	75.3	73.4	72.6	69.4	67.8	66.1	66.3
	대졸이상	22.4	23.4	24.2	24.7	24.6	26.7	27.4	30.6	32.2	33.9	33.8
A	고졸이하	57.2	56.1	54.4	54.8	55.8	51.5	51.2	49.3	48.7	47.4	47.3
	대졸이상	42.8	43.9	45.6	45.2	44.3	48.5	48.8	50.7	51.3	52.6	52.7
B	고졸이하	81.2	79.9	79.6	79.2	79.2	78.0	76.9	73.0	71.3	70.2	69.4
	대졸이상	18.8	20.1	20.4	20.8	20.8	22.0	23.1	27.0	28.7	29.8	30.6
C	고졸이하	87.9	87.5	87.5	86.3	85.4	83.8	83.3	84.2	81.2	78.2	80.3
	대졸이상	12.1	12.5	12.5	13.7	14.6	16.1	16.7	15.9	18.8	21.8	19.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각연도 8월).

구분: A.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B.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C.무급가족종사자

2007-2017 기간 동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하여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7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0.0%, 무급가족종사자 16.3%였다. 2017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 비중이 4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리자·전문가 24.2%, 기능·기계조작종사자 18.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사무종사자 비중이 30.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기능·기계조작종사자 28.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20.8% 순이었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 38.7% 및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3.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직무수행태도 즉,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발달시켜야 하는 직업에 대한 윤리와 자세로서 직업인이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일에 대한 신념, 태도, 행동”으로 정의된다(박화춘·박천수, 2019). 박화춘·박천수(2019)는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018년 자료를 이용해 연령 및 학력수준 등에 따른 직무수행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직무수행태도는 높아지다가 60대에 감소추세를 보이며, 학력수준 높아질수록 직무수행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의 직무수행태도가 5.56으로 임금근로자의

<표 4> 직업별 비임금근로자(2007-2017)

구분	직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A	1	31.0	32.1	31.9	31.3	26.8	25.7	26.6	24.3	24.2
	2	2.9	2.2	4.0	4.1	4.8	6.0	6.2	6.8	7.8
	3	40.1	41.1	40.0	38.2	41.1	41.5	41.2	42.1	43.7
	4	3.1	2.8	3.2	3.2	3.2	2.6	3.3	3.3	2.3
	5	20.5	18.8	18.5	21.4	21.8	21.3	19.9	20.3	18.5
	6	2.4	3.0	2.5	1.8	2.3	2.8	2.8	3.1	3.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	1	11.8	12.6	12.9	13.5	12.9	13.6	13.2	14.2	14.6
	2	0.7	0.7	0.5	0.9	0.8	1.0	1.2	1.6	1.5
	3	34.0	32.9	31.9	29.7	30.2	29.9	30.2	29.6	30.1
	4	24.3	24.0	24.7	24.8	23.9	23.4	23.5	21.2	20.8
	5	23.9	24.3	24.3	25.7	26.6	26.7	26.4	28.0	28.0
	6	5.3	5.5	5.7	5.4	5.6	5.4	5.5	5.4	5.2
	계	99.9	100.1	99.9	100.1	100.0	100.0	100.0	100.1	99.9
C	1	2.4	3.2	2.6	3.0	3.0	2.5	3.0	2.4	3.2
	2	7.1	7.0	8.1	9.1	9.2	10.3	8.4	8.8	9.1
	3	41.3	40.3	39.0	35.3	36.3	36.2	36.9	39.5	38.7
	4	37.2	36.8	37.1	37.3	36.3	37.9	39.1	35.0	33.4
	5	6.5	6.2	6.1	7.7	7.8	6.5	6.4	5.9	6.4
	6	5.5	6.5	7.0	7.7	7.3	6.6	6.3	8.5	9.1
	계	99.9	100.1	99.9	100.1	100.0	100.0	100.0	100.1	9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각연도 8월).

구분: A.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B.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C.무급가족종사자

직업(6차): 1.관리자·전문가 2.사무종사자 3.서비스·판매종사자 4.농림어업숙련종사자 5.기능·기계조작종사자 6.단순노무종사자

직무수행태도 5.3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크루트 2020 일자리만족도 조사결과, 자영업(개인사업)이 일자리 불만족 상위 1위를 차지했다²⁾. 배화숙(2010)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해 비임금근로자의 생활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임금근로 유지 집단에 비해 임금근로에서 비임금근로로 이행한 집단과 비임금근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2017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안정적인 회사, 직무가 적성에 맞는 회사, 급여가 높은 회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기현 외, 2017: 58; 김유빈·강민정·고영우·김영아, 2019: 35에서 재인용). 2019년 조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만19-29세는 고용불안정을 1순위, 낮은 급여수준을 2순위로 꼽았다. 30-39세도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과 낮은 급여수준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창업을 생각해보았거나 경험여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만19-29세는 6.0%, 30-39세는 18.9%로 나타나 20대와 30대의 창업 경험

2)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0923/103063195/1> 2020.11.6.인출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김형주·연보라·유설희, 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분석한 김성아·정해식(2019)에 따르면, 청년층의 불안정한 경제활동 상태가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최근 20-40세대가 중소기업 취업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고용불안정을 꼽았던 것과 부합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삶의 영역 중 실업 및 빈곤에 대한 불안과 관련해 5점 척도 기준으로 청년은 3.28, 중년은 3.32, 장년은 3.27, 노인은 3.11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에서 연령집단별 삶의 만족도를 확인해보면, 2019년 기준 19-29세 6.0, 30대 6.1, 40대 5.9, 50대 6.1, 60-69세 5.8로 나타난다. 특히 30-39세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에 응답한 비율이 0.8%로 19-29세 0.1%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지만,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고 만39세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은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이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지원대상은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자격연령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다. 이상과 같이 청년의 연령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또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등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층 또는 청년세대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았는데, 이는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지연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등을 고려해 청년세대의 범위를 넓혀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II. 실증자료

1. 분석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의 3,624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청년층의 주관적 특성이 무엇인지, 기존 세대와 다른 경향성이 포착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교육정도, 성별, 직무만족도(전반적, 요인별), 비임금 고용형태 등과의 관련성

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22차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 중 비임금 고용형태가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 3,603명에 대해 18통합표본 횡단면가중치를 적용했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변수 특성

변수		Obs	Mean	S.D.	Min	Max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3,595	3.798	2.239	1	7
연령		3,603	57.089	12.737	21	94
연령그룹		3,603	3.234	1.225	1	5
교육정도		3,502	1.508	0.849	1	4
남성		3,603	0.603	0.489	0	1
비임금 고용형태		3,603	1.966	0.612	1	3
삶의 만족도		3,603	6.232	1.420	0	10
전반적 직무만족도		3,602	3.381	0.618	1	5
요인별 직무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3,602	3.205	0.755	1	5
	취업의 안정성	3,602	2.715	0.676	1	5
	하고 있는 일의 내용	3,602	2.638	0.642	1	5
	근로환경	3,602	2.738	0.647	1	5
	근로시간	3,602	2.758	0.665	1	5
	개인의 발전가능성	3,602	2.802	0.640	1	5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3,602	2.655	0.584	1	5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종속변수인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한국노동패널』 22차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만 한정된 자료임에 따라 횡단면 다항 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와 비임금 고용형태는 22차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고, 그 외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성별, 교육정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등은 22차 개인용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기타로 구분된다. 다만, 본 분석에서는 기타를 제외하였다. 비임금 고용형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만을 데리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거나 상점 또는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자신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족(친척)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높이는 데 일주일 기준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로 구분된다.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62.4%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고, 20.5%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나머지 17.1%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었다. 비임금근로자 연령은 최저 21세에서 최고 94세까지 분포하며, 연령대는 21-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그룹으로 나누었다. 남성은 1 여성은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설정했다. 삶의 만족도는 최악의 상태

(0)에서 최선의 상태(10)로 구분되며, 직무만족도는 전반적 직무만족도 5개 문항의 평균값을 부여했다. 전반적 직무만족도 5개 문항은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고 있다, 나는 현재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람을 느끼면서 한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이다.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임금 또는 소득,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환경, 근로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로 7개 문항을 사용했다. 전반적 직무만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아주 그렇다(5)로 구분되며, 요인별 직무만족도는 매우 만족(1)에서 매우 불만족(5)으로 조사되어 역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2.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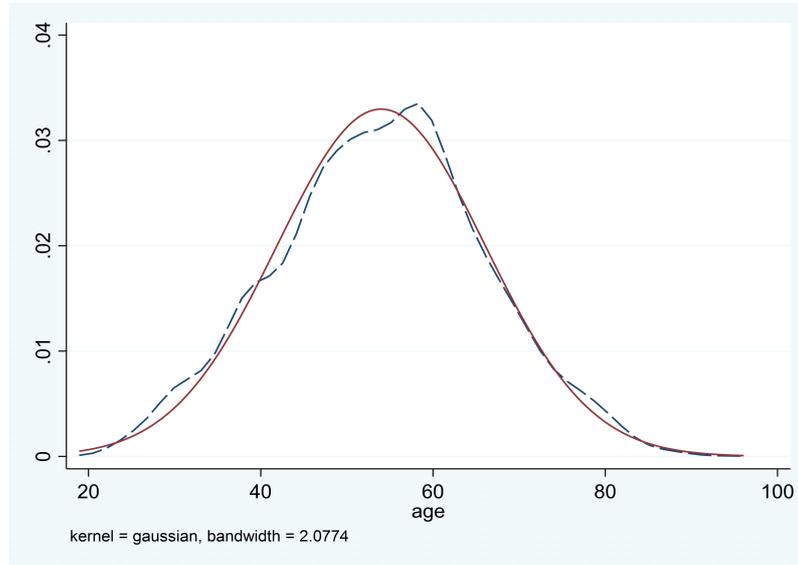
본 연구는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세대별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 즉 연령, 성별, 교육정도, 전반적 직무만족도, 요인별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도, 비임금고용형태 등에 따라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종속변수로 할 때,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 등의 특성과 더불어 직무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특성 등에 따라 각 선택 범주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횡다면 다항(multinomial) 로짓 모형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속변수가 세 가지 범주 이상이고 선택범주들의 순서가 의미를 가지지 않을 때 다항 로짓 모형에 속하며, 이때 각 개인이 특정 범주를 선택할 때 그 선택확률은 개인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본다(민인식·최필선,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7개의 범주를 가지며, 각 선택범주들 간 순서의 의미가 없고,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는 개인의 특성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고 다항 로짓 모형을 적용하였다.

III. 분석결과

1. 비임금근로자 특성

비임금근로자의 연령은 21세부터 94세까지 분포하며, 평균 53.98세, 중앙값 54세다. 그림과 같이 연령 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깝고, 연령대를 21-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으로 구분해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비임금근로자 연령대별 분포는 50-59세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전체의 32.5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0-69세 22.51%, 40-49세 21.70% 순이며, 21-39세가 13.26%로 가장 비중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비임금근로자 연령 분포(Mean=53.98)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표 6>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구분	Mean	S.D.	Freq.	Obs.
21-39세	6.42	1.493	862,064	329
40-49세	6.53	1.453	1,410,364	710
50-59세	6.34	1.379	2,117,519	977
60-69세	6.18	1.350	1,462,954	906
70세이상	5.94	1.405	647,610	660
Total	6.31	1.417	6,500,510	3,582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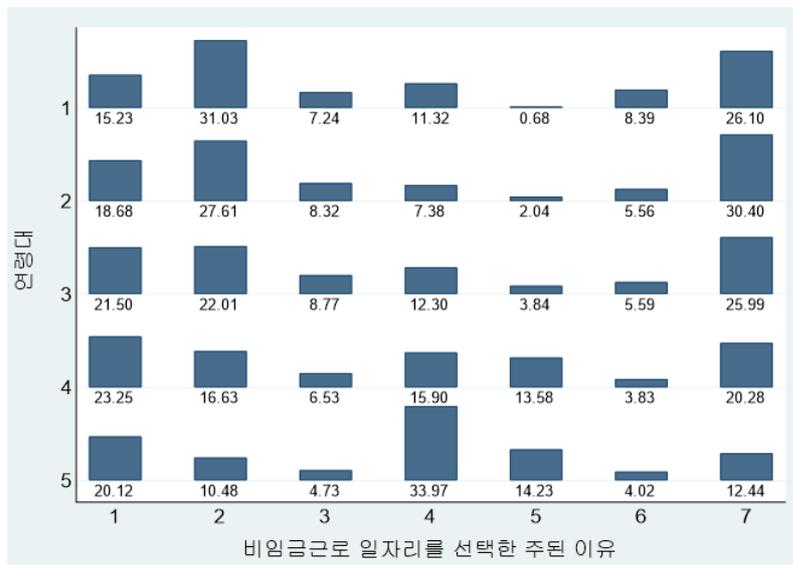
<표 7>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별 삶의 만족도

구분	Mean	S.D.	Freq.	Obs.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5.87	1.447	1,315,939	731
창업(자영업)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6.60	1.371	1,428,950	695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	6.42	1.374	489,936	260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6.07	1.382	912,194	606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6.24	1.365	405,469	270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6.42	1.318	349,952	192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6.51	1.379	1,575,371	820
Total	6.31	1.414	6,477,811	3,574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비임금근로자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40-49세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가 6.53으로 가장 높고, 21-39세 연령대가 6.42, 50-59세 연령대가 6.34 순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대는 70세이상으로 확인된다.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에 따라 삶의 만족도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다. 삶의 만족도는 0에서 10까지 조사되었는데, 비임금근로자 전체 삶의 만족도 평균은 6.31로 보통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6.60),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6.51) 순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범주는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5.87)로 확인된다. 이처럼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주관적 의지나 경제적 성과 등에 초점을 둔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가 비례하여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안적으로 선택한 비임금근로일 때에는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연령대별 비임금근로 선택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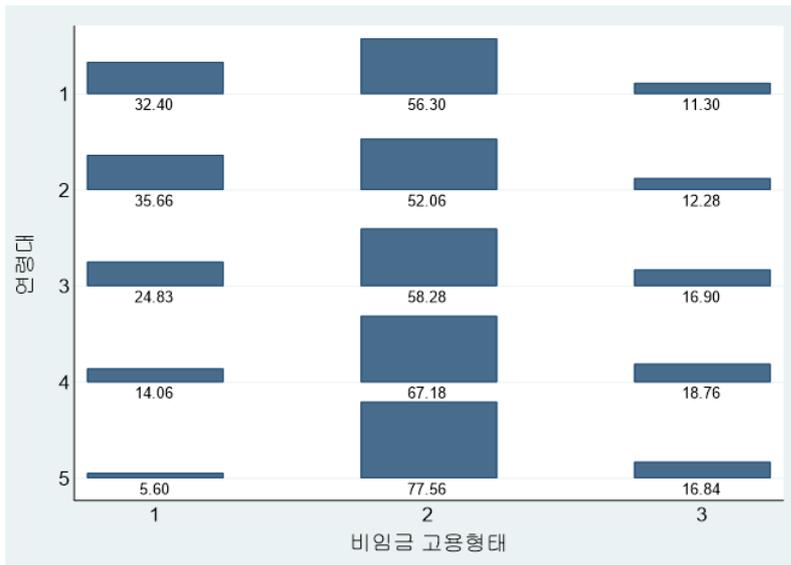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구분: 1.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2.창업(자영업)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3.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4.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5.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6.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7.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대 및 비임금근로 선택 주된 이유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였다. 21-39세 연령대의 경우,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15.23%, 창업(자영업)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31.03%,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 7.24%,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11.32%,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0.68%,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8.39%,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26.10%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층에 해당하는 21-39세 연령대의 경우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로 나타났다. 40-50대의 경우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가 각각 30.43%, 25.99%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대는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비임금근로를 선택한 비율이 23.25%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은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이유가 33.97%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대와 같이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가 20.12% 나타났다. 이처럼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에 있어 연령대별 차이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연령대별 비임금 고용형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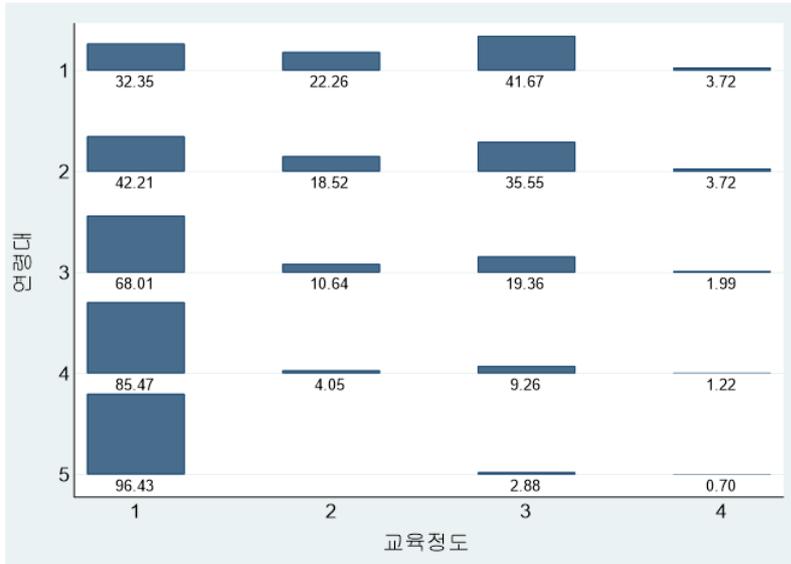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구분: 1.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무급가족종사자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별 비임금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 21-39세 연령대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2.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6.30%, 무급가족종사자 11.30%로 나타났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1-49세 연령대에서 30% 초반대를 보이지만, 이후 연령대로 갈수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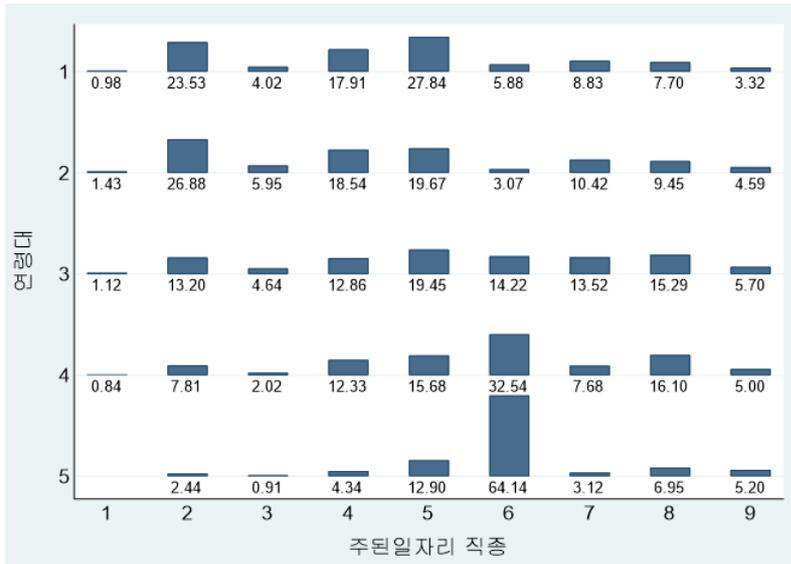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의 연령대별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21-39세의 경우 대졸 41.67%로 가장 많고, 고졸 이하 32.35%, 전문대졸 22.26%, 대학원졸 3.72%로 나타났다. 40-49세 연령대는 21-39세 연령대와 유사하지만 고졸이하 비중이 약 9.86%p 많고, 대졸 비중이 6.11%p 낮다. 5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고졸이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50대는 68.01%, 60대는 85.47%, 70대이상은 96.43%로 거의 100%에 가깝다.

[그림 4] 연령대별 교육정도별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구분: 1.고졸이하 2.전문대졸 3.대졸 4.대학원졸

[그림 5] 연령대별 주된일자리 직종별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구분: 1.관리자 2.전문가및관련종사자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림어업숙련종사자 7.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8.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비임금근로자의 주된일자리 직종은 통계청 표준직업분류 6차 기준에 따르며, 코드에 따라 9개 직종으로 구분된다. 21-39세 연령대는 판매종사자 비중이 27.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가및

관련종사자 22.53%, 서비스종사자 17.91% 순으로 나타났다. 40-49세 연령대는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비중이 26.88%로 가장 높았고, 판매종사자 19.67%, 서비스종사자 18.54%로 나타났다. 20-40대 연령대의 비임금근로자 직종분포는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50대로 가면서 점차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중이 높아지고, 70세이상 비임금근로자의 64.14%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일자리 직종별 평균연령을 살펴보면, 9개 직종 중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 직종은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8.06세, 사무종사자 50.57세이고,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직종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64.19세로 확인되었다.

2.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비임금근로자 특성 분석을 통해 세대별로 비임금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및 삶의 만족도 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령, 성별, 교육정도, 전반적 직무만족도, 요인별 직무만족도, 삶의 만족도, 비임금고용형태 등에 따라 비임금근로 선택의 주된 이유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종속변수로 할 때, 연령 및 교육정도에 따라 각 선택범주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주요 독립변수는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또는 연령대로 설정하였고, 연령증가에 따른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별 범주에 속할 확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일 때 비임금 고용형태가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종속변수로 할 때 연령에 따라 각 선택범주에 속할 확률을 보여준다.

표8은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에 대한 다항로짓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는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이며,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이유를 base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이 청년층의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에서 주요한 객관적, 주관적 특성에 있다는 점에서 분석결과는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형1-모형3은 포괄모형으로 설정하였고, 모형1과 모형3을 비교할 때 AIC 및 BIC 값이 작아지고 있어 더 선호되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모형1은 연령대와 교육정도 그리고 성별을 포함한 모형이다. 70세이상 연령대 기준범주와 비교해 21-39세 및 40-49세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보다는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고졸이하 대비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모두 유의하게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이유 보다는 하고 싶은 업종에 따른 이유로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2는 모형1에서 주관적 특성에 해당하는 통제변수를 추가한 모형이다. 즉 전반적 직무만족도 및 요인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추가한 모형이다. 이 중 전반적 직무만족도,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따른 직무만족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통제변수로 확인되었다. 모형3은 비임금 고용형태를 추가한 모형인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를 준거집단으로 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와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유의하게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이유 보다는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이 크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보다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서 연령대별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범주별 확률을 제시하였다. 표9과 그림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층에 해당하는 21-39세 연령대의 경우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중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이 가장 높고,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가 다음으로 높았다.

<표 8>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에 대한 다항 로짓 분석결과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model 1		model 2		medel 3	
21-39세		0.827**	(0.265)	0.568*	(0.273)	0.468	(0.274)
40-49세		0.580*	(0.245)	0.346	(0.251)	0.225	(0.253)
50-59세		0.389	(0.231)	0.158	(0.236)	0.068	(0.237)
60-69세		0.158	(0.239)	0.036	(0.244)	-0.005	(0.244)
전문대졸		0.495**	(0.173)	0.435*	(0.177)	0.348	(0.179)
대졸		0.807***	(0.141)	0.648***	(0.147)	0.553***	(0.149)
대학원졸		1.785***	(0.431)	1.372**	(0.440)	1.297**	(0.443)
남성		0.245*	(0.116)	0.247*	(0.119)	0.135	(0.127)
전반적 직무만족도				0.452***	(0.116)	0.402***	(0.116)
직무 만족도	임금 또는 소득			0.002	(0.082)	-0.014	(0.083)
	취업의 안정성			0.086	(0.107)	0.074	(0.108)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386**	(0.133)	0.389**	(0.134)
	근로환경			-0.128	(0.133)	-0.14	(0.133)
	근로시간			-0.163	(0.114)	-0.159	(0.115)
	개인의 발전가능성			-0.114	(0.133)	-0.125	(0.133)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345*	(0.136)	0.353*	(0.137)
생활만족도				0.205***	(0.043)	0.188***	(0.04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626***	(0.136)
무급가족종사자						-1.022***	(0.246)
_cons		-0.786***	(0.229)	-4.793***	(0.461)	-3.720***	(0.498)
N		3,472		3,472		3,472	
AIC		11725.143		11445.27		11036.464	
BIC		12057.378		12109.738		11774.763	
ll		-5808.572		-5614.635		-5398.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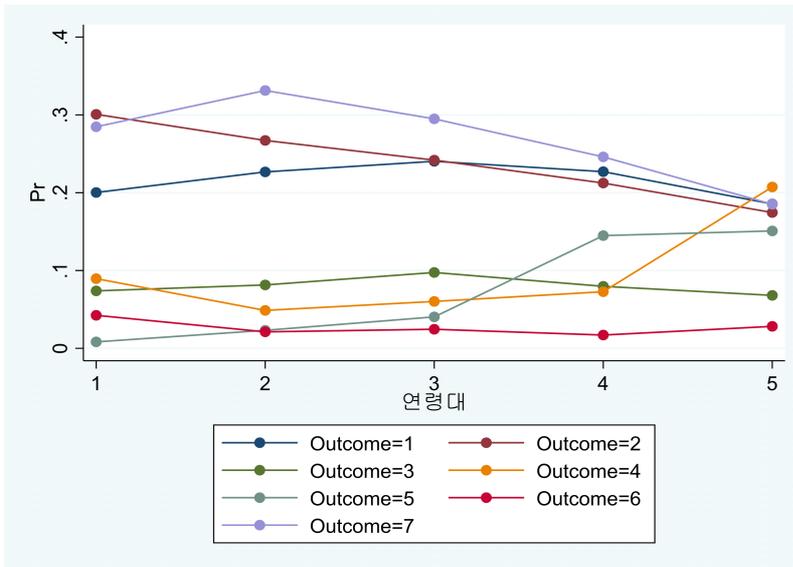
* p<0.05, ** p<0.01, *** p<0.001

<표 9> 연령대별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범주별 확률

구분	1	2	3	4	5	6	7
21-39세	0.200	0.301	0.074	0.090	0.008	0.042	0.285
40-49세	0.227	0.267	0.081	0.049	0.023	0.021	0.331
50-59세	0.240	0.242	0.097	0.060	0.040	0.025	0.295
60-69세	0.227	0.212	0.080	0.073	0.145	0.017	0.246
70세이상	0.186	0.175	0.068	0.207	0.151	0.028	0.185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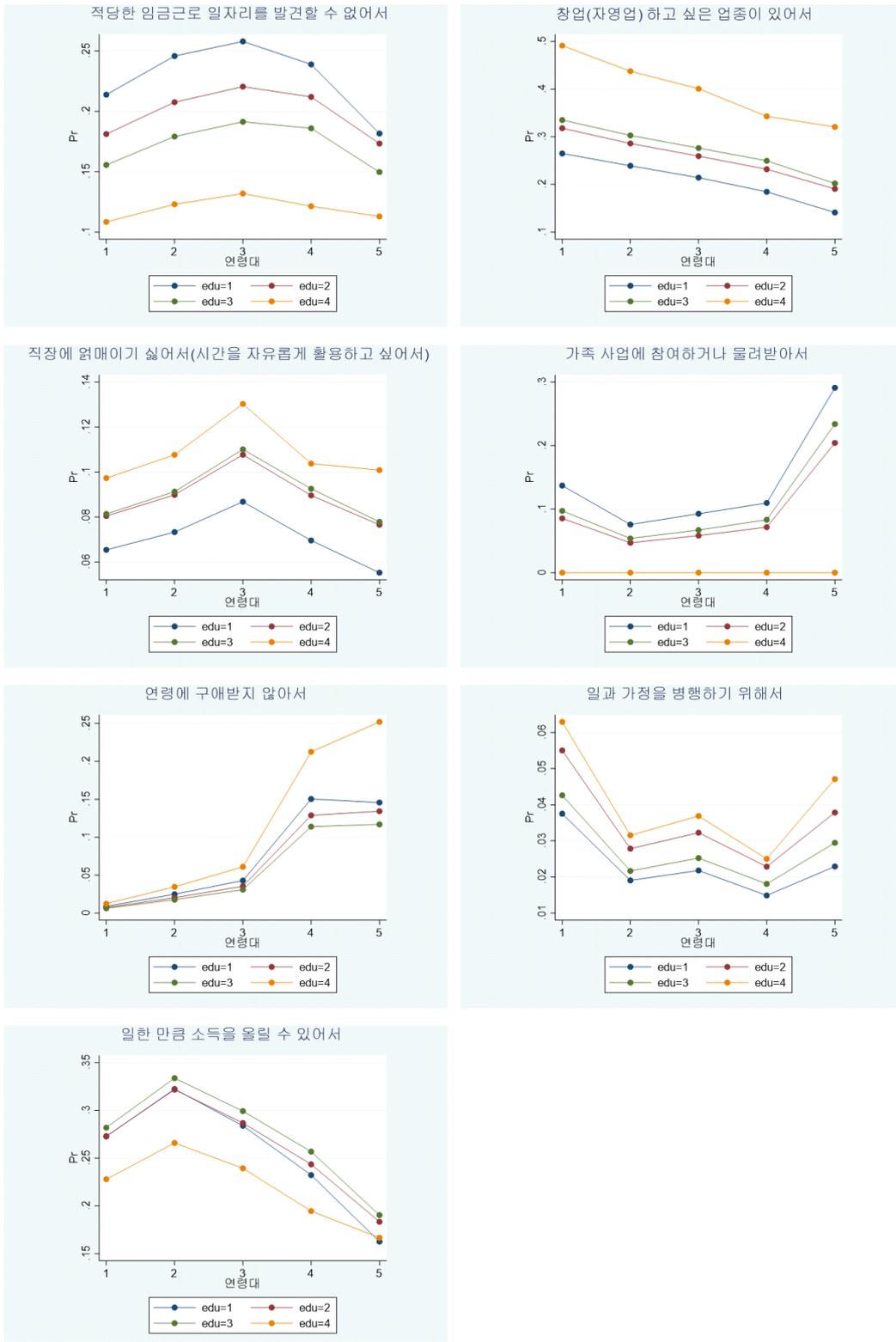
[그림 6]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범주별 확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구분해 연령 및 교육정도에 따라 각 선택범주에 속할 확률을 확인하였다.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발견할 수 없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교육정도에 따른 위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정도가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올라갈수록 확률이 낮아짐이 확인된다. 그리고 40-49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창업(자영업)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21-39세 연령대가 가장 높았다. 하지만 동일 시점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확률이 낮아졌다. 모든 연령대에서 교육정도가 대학원졸일 때 선택범주 2의 확률이 높았다.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교육정도가 대학원졸일 때 가장 높고, 고졸이하일 때 가장 낮아 대조적이었다. 연령대가 21-39, 40-49, 50-59세로 증가할수록 선택범주 3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가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족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아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고졸이하일 때 가장 높았고, 40-69세 연령대에 소폭 증가하다가 70세 이상으로 가면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21-39세 연령대에 가장 높았다.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범주에 속할 확률은 교육정도가 대졸이고 연령대가 40-49세일 때 가장 높았다. 이상과 같이, 연령대 및 교육정도에 따라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 연령대 및 교육정도별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 범주별 확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년도 개인 및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IV. 요약 및 결론

최근 아동·청소년 삶의 질, 웰빙, 행복 등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복교육, 인성교육, 인권교육 등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세대와 다른 학습경험을 가진 청년세대가 학습경험을 토대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대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안정적인 또는 고소득 임금근로 일자리가 아닌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청년층의 특성이 학습경험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면 기존 교육 및 사회정책의 유의미한 성과이자 변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22차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해 청년세대의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주된 이유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19차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에 포함된 공정성, 자존감, 사회적지지 등의 주관적 특성을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22차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와 연계되는 개체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비임금근로 일자리 선택의 세대별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 청년층이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연령, 성별, 교육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 특성과 더불어 생활만족도, 행복감, 자존감, 사회적 지지 등의 주관적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았다. 취업 대신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21-39세 연령대의 청년층은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및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의 이유로 비임금근로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이처럼 비임금근로 일자리를 선택한 주된 이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주관적 의지나 경제적 성과 등에 초점을 둘 때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반면 적당한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대안적 선택에 따른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해당할 경우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청년세대의 경우 임금근로 대신에 비임금근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구에 따른 것임을 확인했다. 다시 말해서 비임금근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는 편견, 불안 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청년세대의 일자리 선택에서 본인의 필요 및 욕구가 우선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청년이거나, 미래 청년이 될 아동·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실패에 대한 강한 두려움 등이 개선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회성 재정지원 차원의 창업정책도 중요하지만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창업교육 활성화, 노동시장 진입의 다양화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현·이운주·유설희(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기초분석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아·정해식(2019). 「연령대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형주·연보라·유설희(2019).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V-기초분석보고서』,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박화춘·박천수(2019).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조사를 통해 본 직무수행태도」, KRIVET Issue Brief, 167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통계청(2020).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보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20). 한국노동패널 1~22차년 조사자료 유저가이드(1~22차년도 학술대회용 자료).

